

생활과학 정보의 벤처 상품화 -주생활분야의 정보를 중심으로-

홍 형 욱

경희대 아동주거학과 교수

1. 들어가는 말

가정학이 생활과학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가운데 시대적인 요구에 물려 90년대에 많은 가정대학이 명칭을 생활과학대학으로 바꾸었고, 여전히 대한가정학회가 존재하는 가운데 새로이 한국생활과학회가 탄생되어 학문의 정체성과 대학의 명칭과 학회의 명칭에 계통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 의도에 맞추어 각 대학이 모집단위를 광역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간편하게 인문계, 사회계, 이학계, 공학계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생활과학대학은 이중에 어느 분류에도 속하지 않으며, 인문사회자연예능계의 성격을 풀고투 가지고 있고 그동안 학과의 확대발전과정에서 각 전공의 이질성을 누누히 강조하면서 분과를 해온 것이 사실인만큼 가장 먼저 해체를 거론당하는 수세에 물려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점이 생활과학의 특성이며 장점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려고 노력을 하거나 보여준 적이 없고, 우리 가정학자들마저도 가정학의 명칭을 생활과학으로 바꾸었을 경우의 여러 사태에 대비하지 못한채 대학의 구조조정의 위기를 직면하게 되어 학교마다 방향설정에 난맥상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한가정학회에서는 가정대학의 교양필수였던 가정학원론의 명칭이 설득력을 잃게 됨으로써 '인간과 생활환경'이라는 교과목과 교재를 개발하였으나 그 과정에서도 학문적 정체성을 여전히 '가정학'에 둬으로써, '생활과학'이라는 명칭은 학문적 정체성이 따로 있기보다는 시대적인 분위기에 맞춘 '가정학'의 다른 이름임을 강조하여왔다.

그러나 '한국생활과학회'에서만은 '생활과학'을 연구하는 학회를 표방한 만큼 그 학문적 목표와 특성과 범위를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인데, 오늘 '생활과학정보의 벤처상품화'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를 접하면서 한국생활과학회의 방향설정을 어느정도 감지하게 되었다.

얼마전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과학문화 데이터베이스 IP 사업자 공모를 하면서 그 중 한 테마가 '생활과학'이었고, 대략적으로 제시한 제목이 아동, 가족, 여가, 노인,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소비생활분야를 포함하고 있었던 것을 상기하면 가정학 밖에서 오히려 '생활과학'이 '과학적인 일상생활'로 정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한 맥락에서 생각할 때 '생활과학정보의 벤처상품화'는 생활과학의 경제적 생산성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테마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은 생활과학정보를 벤처상품으로 개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지 않고, 적극적인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는 가운데 최근 본인이 속한 주거학연구회에서 '주택정보리플렛'을 개발하여 기업과 가정에서 필요로하는 정보상품을 시장에 내놓으려고 기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와 관련된 경험을 발표하고자 한다.

원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미국의 'Cooperative Extension Service'에서 제공하는 재택소규모사업의 아이템, SOHO(small office home office)의 검색결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터넷상에 개설된 가상회사의 검색결과를 참고 하였다.

2. 벤처상품의 특성과 주생활정보의 특성

1990년은 '기업가의 시대'라고 할만큼 많은 사람들이 재택사업을 창업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경제와 작업장에 대한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재택사업은 새로운 직업으로서 경제 성장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직장을 찾아 헤메기 보다는 집에서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재택사업을 창업하는 동기에 관한 미국의 통계를 보면 46%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하였지만 78%는 자신의 인생을 좀더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90%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만두고 이전의 직업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1) 벤처상품의 혁신성과 규모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경향은 가속화할 전망으로서 대개의 벤처상품은 그 특성상 혁신적 이므로 컴퓨터라는 유용한 도구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규모는 소규모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 중의 대표적인 벤처상품이 전문적인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IP 사업이나 가상사무실을 개설 하여 제품을 진열하고 주문 판매를 하거나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는 여성적인 적성에 맞고 가정에서도 컴퓨터만 갖추면 일단 시작을 해볼 수 있는 유망한 벤처사업이 될 수 있다.

최근의 기사(경향신문, 1998, 7, 28일자)에 의하면 그동안 월평균 20명 정도가 가상사무실을 임대해 사업을 벌였으나 올들어 월 50명 선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천리안도 작년에 비해 고객이 90%정도 이상 급증했다고 한다. 이러한 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벤처사업은 숫적으로 대단히 성장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2) 주생활 정보의 시장성

벤처사업의 성공여부는 그 시장성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러한 사업에 대한 자료가 풍부한 미국의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미국 Mississippi주의 경우 Home Based & Micro Businesses에서 각 분야별로 차지하는 비율을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Consulting Services(10%), Skilled Services(68%), Educational Services(1%), Product Manufacturing/FineArts(13%), Product Sales(4%), Agriculture/Forestry/Fishery(3%), Tourism/Recreation(1%), Business Information Management, Family Related, Secretarial, Construction, Sewing, Maintenance/Repair, Computer, Crafts, Furniture/Wood, Health, Textile Related

이상과 같이 실물 상품 보다는 정보를 가공한 서비스 상품과 기술축적을 통한 서비스의 경우가 더 시장성이 높을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주생활 정보를 수집하여 열람에 따른 수수료만을 소득으로 하는 경우보다는 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로 재구성한 상품이 유망하리라고 본다.

3. 주생활정보의 벤처상품

대개의 벤처사업의 유통채널은 점포형과 가상공간형이 있을 수 있고 재택사업(SOHO)은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다. 주생활정보의 상품유형으로는 지식상품과 실물상품이 있다고 생각되며, 지식상품은 간행물형과 네트워크 이용 확대상품이 있을 수 있다.

1) 상품유형

(1) 지식상품—internet에 정보제공 홈 페이지를 개설하여 소비자들이 접속할 때마다 이용료를 받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이 있어야하고 이를 매력적인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해야한다.

주거학 연구회에서 기획했던 '주택정보리플렛'은 바로 이러한 유형에 속한 것으로서 총 186개의 item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76페이지의 정보가 실려 있다. 그 내용은 대략 A. 주거생활양식과 주거선택 B. 주거계획 C. 주택관리 D. 주택점검과 유지보수 E. 개조 F. 가구와 수납 G. 가정설

비와 가정기기 H. 주택재료와 주택구조 I. 주거환경 J. 주택경제 K. 주택법규 L. 상담과 교육 기관 M. 전시장과 판매처 N. 참고문헌으로 되어 있다. 원래는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의 주택홍보관인 '동아 하우스 갤러리'에 진열해 놓고 날개로 판매할 예정이었으나 건설계획이 중단됨에 따라 계약도 잠정 중단되었기 때문에, 리플렛이 아닌 책으로 지난 8월 5일이 출간되어 일반 판매를 할 예정이다. 또한 CD로도 별도 제작되어 교수요원을 대상으로 판매를 할 예정이다. 우리 연구회에서 기획했던 상품 외에도 다음과 같은 주제의 정보를 잘 가공하여 internet에 올려서 그 정보의 우수성을 인정받기만 한다면 아주 좋은 정보상품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주생활 양식 판정과 주거선택 정보
- 주택 건축과 개조 정보
- 주택재료와 시설설비 정보
- 세계의 전시장과 판매처 정보
- 주택 점검과 유지 보수 정보
- 전원주택과 동호인 주택 정보
- DIY 주택과 DIY 가구 정보
- 주거환경(소음, 에너지, 물과 공기)관리 정보
- 주택단지와 아파트 선택 정보
- 노인생활환경과 노인시설 정보
- 주택관리의 점검 정보
- 주택 법규, 금융과 투자정보
- 수납과 인테리어 디자인 정보
- 주택관련 가상전시관(세계의 실내장식 구경하기, 고전가구, 현대가구, 세계의 장식소품 박물관 탐방)

(2)실물상품—taste가 있는 주택 장식 소품과 재료와 시설설비, 가구 상품

(3)가상사무실과 확대상품—

- 오피스텔 매매와 임대 네트워크,
- 農都不異 주택과 동호인 결성 네트워크
- 가구구매와 수리, 임대 네트워크
- 주택임대와 매매 네트워크
- Home Cleaning 네트워크
- 가족 행사 Event 테마인테리어 기획사
- 주택점검과 관리 네트워크
- 세계의 주택 투어 기획 여행사
- 하우스 클리닝 네트워크(곰팡이, 냄새)
- 세계의 가정문화체험 민박 네트워크
- 주택수리 장비 임대 네트워크
- 주택과 가구수리 후리랜서 네트워크
- 공동주택관리사 소개방
- 공동주택관리사 시험대비 가상학원
- 주거재무설계 상담방
- 후리랜서 실내코디네이터 네트워크
- 주택관련자료 스크립터

2)유통 채널

(1)점포형

①개별점포형-주택장식 소품 제작점, 테마 직물과 가구점

②franchise형- 인테리어소품점, 가구와 장식소품임대업, 가구 리폼사 등이 유통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미국 SOHO 업종으로 소개된 체인점 500 가운

데 제품과 서비스 위주의 사업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으며 굵은 글씨는 주력정보가 유용할 수 있는 분야이다.

Franchise 500- Appliance/Furniture Rentals & Sales

Art Products & Services,

Building Services-Misc.

Cabinet Refacing/Remodelling

Carpet Sales

Carpet, Upholstery & Drapery Services

Closet System

Commercial Cleaning Services

Construction/Remodelling Services

Decorative Products & Services-Misc.

Dry Cleaning & Laundry Services

Dry Cleaning Delivery

Environmental Businesses

Furniture Restoration Services

Furniture Restoration & Accessories

Gifts & Flowers

Greeting Card Distribution

Hardware

Home Inspection Services

Home Repair Services

Hotels & Motels

Lawn Care & Landscape Services

Maintenance Products&Services-Misc.

Moving Services

Party Stores

Photo-Related Businesses

Printing Services

Real Estate Services

Recreational Activities Facilities-Misc.

Residential Cleaning

Restoration Services

Restroom Hygiene Services

Security & Safety Businesses

Senior Care/Companion Services

Surface Refinishing/Restoration services

Travel Agencies

Vinyl Repair

Window Treatment

Wireless Communication Stores

(2) **internet과 통신망 형**- 가상공간을 임대해서 30만-100만원 정도의 투자비를 들 여 월 100만원-2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사업자는 보통 하루에 3-4시간을 투자하며 겸업이 가능하고 재택근무가 가능하며 시간이용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가상공간 임대 외국업체는 1000여개 인데 국제적인 판매망을 원하면 가장 좋은 조건의 웹호스팅 업체에 사무실 즉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인 가상공간 (웹호스팅) 서비스 업체는 다음과 같다.

회사이름	홈페이지 (http://)	가격(만원)	연락처(02)
아이네트	www.iworld.net/Service/iWEB	30.10/50MB	531-7796
한국통신	w4.konet.nm.kr	0.15/30MB	3692-3249
코리아호스트	www.adgrafix.co.kr	79\$.39\$/15MB	080-951-2580
대신씨엠디	www.adhost.co.kr	10.6/150MB	604-4323
네오미디어	www.neoline.com	20.35/100MB	336-2806,7,8
옥일웹서비스	ugil.net	5.1/30MB	053-472-2398
타이틀미디어	www.dofree.co.kr	9.1/3MB	453-9903

가격 1.1/10MB=초기설치비 1만원, 월사용료 10MB당 1만원

주제에 따라 전문 지식을 제공하거나 관련 사이트 소개와 연결을 해주고, E-mail을 통한 after service를 하며, 정보 이용료가 주 수익인 경우도 있고 관련 아이템으로 확대사업을 펼치는 경우도 있다.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개업과정-1)개발하고자 하는 유사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지 알아본다. 만약 있으면 차별화 전략을 세운다.

2)원시자료 수집 경로를 만든다.

3)서비스하고자 하는 주요 목차 즉 메뉴를 만든다.

(엔터키를 치는 순서를 만든다.)

4)한국정보통신 윤리부에 사전심의를 받는다.

5)심의회적 합격판정서 사본을 제안서와 함께 제공하고자하는 PC통신사 IP개발부에 제출한다.

6)정보의 유용성, 정보의 시장성, 정보의 신뢰성, 정보의 수집력, 정보의 전문성, 정보의 필요성, 정보의 발전성을 기준으로 정보제안서를 검토받아 서비스 가능 여부를 통보받는다.

7)이용료를 책정한다.(생활정보는 통상 분당 50원을 넘지 않으나 전문적인 정보일 경우 그 가치에 따라 100원에서 500원까지 받고 있다.)

심사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6개월 까지 걸리며 자료 수집에서 계약에 이르기 까지 보통 1년여가 걸린다.

IP 창업시 유의할 점 6가지 :

1)거시적인 안목으로 창업하라.

2)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라.

3)동사형 아이디어를 찾아라.(명사형 아이디어는 이미 포화상태이다. 이용자가 실제로 주체가 될 수 있는 다이드어가 중요하다.)

4)확대가능한 이이템을 잡아라.(on-line 이용료 만이 아니고 off-line서비스에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릴수 있다.)

5)차별화 전략을 세워라.

6)정보소비자들의 소비행태연구를 선행하라.

(3)SOHO형

small office home office를 창업하려는 열기는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이다. 그런데 이 SOHO의 개념이 집에 사무실이 있어서 적은 인원이나 가족중심의 사업을 펼친다는 재택근무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컴퓨터가 작은 사무실의 기능을 하는 정보형의 사업인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 채택 창업이 가능한 50개 업종에 대해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경향을 알아보았다. 이 중에서 주택정보가 유용한 분야는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50 Great Home Business Start-Up Idea;	
<p>Abstracting</p> <p>Antique Locator</p> <p>Bed & Breakfast</p> <p>Bookkeeping</p> <p>Business Brokerage</p> <p>Career Counselor</p> <p>Caterer</p> <p>Child Care Provider</p> <p>Cleaning Services Residential Collections</p> <p>College Scholarship Consultant</p> <p>Computer Instruction</p> <p>Copywriter</p> <p>Database Designer</p> <p>Delivery Service</p> <p>Deposition Digester</p> <p>Fitness Instructor</p> <p>Fund Raising</p> <p>Garage Sale Promotion</p> <p>Graphic Designer</p> <p>Greeting Reminder</p> <p>Grocery Service</p> <p>Headhunter</p> <p>Herb Gardening</p> <p>Home Restoration</p> <p>Household Management</p> <p>Household Referral Services</p>	<p>Information Gatherer</p> <p>Medical Billing</p> <p>Medical Claims</p> <p>Medical Transcriptionist</p> <p>Meeting Planner</p> <p>Mobile Disc Jockey</p> <p>News Clipping Service</p> <p>Overcharge Collection Service</p> <p>Pager Rentals & Sales</p> <p>Party Planner</p> <p>Personal Image Consultant</p> <p>Personal Shopper</p> <p>Pet Sitting</p> <p>Plant Caregiver</p> <p>Public Relations Specialist</p> <p>Rare Book Broker</p> <p>Recording Secretary</p> <p>Relocation Consultant</p> <p>Resume Service</p> <p>Seminar Producer</p> <p>Specialized Temporary Agency</p> <p>Specialty Foods</p> <p>Standardized Test Coaching</p> <p>Technical Writer</p>

4. 나오는 말

우리나라에 있어서 벤처사업의 풍토는 대단히 척박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표적인 벤처사업이라고 알려져 있는 한글과 컴퓨터의 경우에도 지적소유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복제가 난무하여 정품 판매량이 전체의 10%정도밖에 안되었었다는 얘기가 돌리고 있다. 생활과학 정보의 경우에 출판물 형태나 IP사업형태는 지적소유권에 대한 방어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이나 관련서비스로 확대상품을 개발하는 경우까지 확장하면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규모가 커지게 되고, 사업의 확대에 따른 위험부담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이찬진 컴퓨터교실'이 확대사업의 일환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럴 때 지점 관리와 교사 관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활과학 정보의 경우에도 확대상품에 이르게되면 비슷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앞으로 손쉽게 창업이 가능한 IP사업분야로 생활과학 전공자들이 많이 진출하여 정보도 확대하고 사업적인 성공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